

2024년 5월 5일(주일) 제1681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오늘은 어린이주일!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주일을 맞아 각 교회학교 별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며 특별히 점심식사로 짜장면을 준비하였습니다. 서울교회 어린이들이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를 바라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 주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바른 어른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17대 장로 후보 10명 선출을 위한 특별 제직회

오늘 찬양예배 시
5월 19일(주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

지난주 주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제17대 장로후보 10명 선출을 위한 특별 제직회가 열립니다.

특별 제직회에서 제직들은 OMR 카드에 지난주 순례자 삼지로 나간 후보 280명 중 10명을 기표하여 주시면 되고 최고 득표자 순으로 10명의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10명 이상 기표한 OMR 카드는 무효표가 됩니다. 오늘 선출된 후보들은 다음 주일 순례자에 사진과 명단이 게재되며 5월 19일(주일) 실시되는 공동의회에서 17대 장로 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 선출되는 10명은 이후 5월 12일(주일) 순례자에, 5월 19일(주일) 열리게 될 공동의회에 안수집사 후보, 권사 후보의 명단과 함께 사진이 나갑니다.

5월 19일(주일) 공동의회에서는 OMR 투표로 5명의 장로를 공동의회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고 안수집사 및 권사는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후보 선출은 당해 연도 은퇴예정

자는 안수집사, 권사 후보에서 제외하고, 시무 기간이 2년 이상 남지 않는 사람은 장로 후보에서 제외하여 장로 선출 후보자의 연령은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68세)-198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40세)로 하고, 입교인으로 7년 이상 경과하고, 안수집사나 권사로 1년 이상 봉사하고, 예배 출석과 십일조 생활, 봉사부서를 섬기는 자로 합니다.

또한 안수집사 후보자의 연령은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69세)-198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35세), 권사 후보자의 연령은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69세)-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50세)로 하고 입교인으로 5년 이상 경과하고, 집사로 3년 이상 봉사하고, 예배 출석과 십일조 생활, 봉사부서를 섬기는 자 중에서 당회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롭게 진행되는 항존직분자 선거일정이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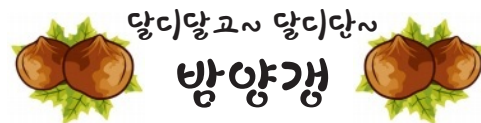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기도가 먼저라!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청년부(회장:이요한)는 5월 12일 아버지주일을 맞아 점심 식사 시간에 밤양갱을 간식으로 600개 준비해서 배식해 드립니다.

비용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였으며 5월 11일(토)에 모여서 직접 제작할 예정입니다. 성도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인 사진 촬영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기

오늘부터, 703호

오늘부터 교적 사진 촬영을 703호에서 시작합니다. 사진 촬영은 교적 사진이 10년 이상 오래된 사진이 게재되어 업데이트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방침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교회도 개인 동의하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기 위한 성도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31일(금)까지 703호를 방문하셔서 사진 촬영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및 다락방은 최신 사진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각 교구 및 다락방장님은 모든 성도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5월의 첫 주일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린이주일입니다. 이번 어린이주일은 어린이날과 겹치며 오늘은 더욱 기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입니다. '어린이'라는 단어는 어린이날의 창시자인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처음 사용한 단어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까지 '아이', '애', '애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호칭들은 '어른'이라는 단어의 대치어로서 어린이들은 그저 어른이 되기 전의 상태, 미완의 상태, 어른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에는 소수의 특별한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느 정도 성장한 어린이들은 곧바로 생업에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논과 공장으로 뛰어들어 어린이들은 현장에서 몸과 마음에 힘겨운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온갖 무시와 천대를 받았으며,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였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당시의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상황을 지켜보며 어린(나이가 적은) + 이(높임 표현)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고 그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며 나라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희망차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손달익 위임목사

예수님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어린이는 매우 낮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 부르기도 하고 어린이들은 인구수의 계산에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어린이란 경제적 수단에 불과했거나, 인간 본연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하면 순결하고 순수한 어린이를 신과 인간의 매개체로서 주술적인 행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관습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 대하 20장 13절 등 말씀 곳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회중 가운데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자녀,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이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사랑하고 닮아야 할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한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마 18: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어린이를 가장 고귀한 인격적 존재와 동격의 동일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어린이들의 모습을 어른들이 닮아야 하는 천국 시민의 본으로 제시하셨고 어린이들과 같은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어린이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분명히 있고 과잉 사랑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돌봄으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도록 끝없이 격려하고 가르치고 축복해야 합니다.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서 브룬틀란(G. H. Brundtland)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창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사전적 의미로 "미래세대의 필요충족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의 결정과 발전 방향이 현재의 만족과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미래세대의 필요와 만족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의 만족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고갈시키고 미래세대가 물려받을 삶의 환경을 파괴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과 사역들은 교회와 세계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미래 세계의 주역으로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서울교회에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의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드높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헌신이 타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혜윤, 혜슬이에게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에게 맡기신 너도 귀하고 보석같은 너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단다.

요즘 너희들이 꼭 빠져있는 아이돌, 캐릭터를 보면서 조금씩 세상에 물들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운 생각도 들지만... 혜윤, 혜슬이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희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있어.

엄마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누리는 행복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혜윤, 혜슬이가 되기를 소원해. 정말 많이 사랑해 ♡

엄마 아빠가



정성우2 집사·박지혜4 집사(4교구)
 정혜윤(유년부 회장), 정혜슬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8:5)

만민에게 전도 - 70인전도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김순진 권사
 (70인전도대 총무)

새봄 온갖 꽃들이 피고 산에는 나무들이 푸르름을 더해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나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0인전도대도 3월부터 새롭게 노방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하는 노방전도는 대치동 학원가를 오가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께도 익숙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일과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교회와 전도회 노방전도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구원, 전도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성도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마음이 뜨거워지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주일과 수요일 오후 1시에 603호로 오

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는 말씀에 순종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노방전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싹토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 나가기 전 영적전쟁을 위하여 돌성경 앞에서 외치는 "한걸음 한 생명 땅끝까지 파이팅!!"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의 외침입니다.

전도를 마치고 빈 가방을 들고 들어올 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이 복음의 물결이 서울교회의 문턱을 넘어 대치동을 넘어 서울을 넘어 땅끝까지 흘러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김영표 안수집사
(2교구 간사)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4월 20일(토)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서울교회 2교구 37명을 모시고, 수원-화성 선교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찬송가 508장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세상 널리 전하세'를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수원 화성행궁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해설사이신 홍민기 교수님의 친절해설로 수원 화성박물관을 관람한 후, 1901년에 설립된 수원 종로교회 역사관에서 강성률 목사님의 종로교회 역사를 들으며 경건해지고, 숙연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120여 년 전 수원 동신교회에서는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인으로 살았던 일본인 노리마츠 목사님 부부의 희생적인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성의 제암교회에서는 무차별 학살된 23명의 묘역과 석호필 선교사 동상 앞에서 가슴 아픈 역사와 어떻게 부활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선교유적지 순례에 처음으로

참여한 저로서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후원해 주신 권사님, 김밥과 간식을 준비해 주신 간사님, 그리고 바쁜 주말에 참여해 주신 2교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순례의 길에서 다시 뵙고 싶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순례의 길을 떠나자!



하늘의 별이 되신 님이시여!



백승갑 안수집사
(8교구)

지난 4월 27일(토) 8교구 가족들 29명은 흥대역 근처 애슐리에서 경건회와 오찬 시간을 갖고, 마포구 합정동 144번지 소재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으로 향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참배객 10여 명 단위로 묘원 내 교회 소속 해설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이곳에 묻히신 417명(15개국:남아공,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등), 이 중 선교사와 가족 포함 145명(6개국:남아공, 미국, 스웨덴, 영국, 캐나다, 호주)이 안장되어 계시다는 안내를 듣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곳 양화진에 안장되신 선교사님들은 18C 구한말을 거쳐 일제 암흑기 동안 하나님 복음을 전파코자 자신의 청춘과 일생을 다 바쳐 그리운 부모형제 고국을 떠나 떠나면 타국땅이고 복음 전파에 척박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님'이 되셨습니다.

비록 짧은 답사 시간이었지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께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밀알이 되어 뿌려주신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더욱 풍성해지며, 하나님 복음사역에 더욱 힘쓰고 앞장서는 대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길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선각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복음에 빛난 자로서 과연 제 자신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반문해 보며 다짐해 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당회와 사랑과 헌신으로 교구 가족들을 돌보시는 교구 지도목사님과 교구장 장로님, 두 분 간사님, 기도와 참여로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모든 교구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Coram Deo!!



3강:죄와 비참함을 알게 해주는 율법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한자어 비참(悲慘)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더 할 수 없이 슬프고 참혹함"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한자어 비참자와 참慘자는 모두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영어로 번역할 때 mind로 번역하기도 하고 heart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mind and heart"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느끼기도 한다고 말하고 마음으로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음은 감정 뿐만 아니라

생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비참함에 놓였을 때 그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누군가는 비참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비참함을 느끼지 않기도 합니다. 비참함을 느끼기는 커녕 다른 사람들도 다 하

는 일인데 재수가 없어서 들켰다고 억울하다고 발뺌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굴욕적인 상황이고 또 비참함을 느낄만한 상황인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비참함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와 비참함을 느끼고, 그 결과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3문: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죄인 줄 알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

기도 합니다. 마치 어느 날 관할 경찰서에서 보낸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함에 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용을 살펴보는 순간에 느낀 당혹스러움과 돈을 떼이는 비참함을 경험했던 때처럼 말입니다. 습관을 따라 운전했을 뿐이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는 것처

럼, 자신이 하는 행동이 죄인지 모르고 또 그 결과가 비참함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치 범칙금 고지서와 같이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제4문: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는 그 자체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율법의 목적은 아닙니다. 마치 범칙금을 발급하여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알리는 것과 범칙금을 통해서 국가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교통법규의 목적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교통법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사람들

이 지켜야 할 약속인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의 표현입니다. 궁극적으로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입니다. 흔히 사랑과 정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정의가 동전의 양면 그리고 검의 양날과도 같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제5문: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흠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만드신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

음을 좋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고 추궁하실 때, 그들은 책임을 전가하는데, 특히 아담은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

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말함으로써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내게 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타락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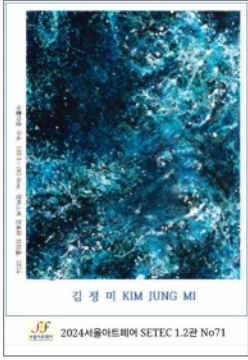
- 정리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부에 해당되는 3문에서 11문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강의에서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3-5문을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충분히 느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관심을 갖

게 될 것입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4영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때를 떠올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착하게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와 비참함을 느끼

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동정



아트페어 전시

- 3교구 김정미 권사
2024 서울아트페어
5월 9일 (목)
- 5월 12일 (일)
SETEC 컨벤션센터
1관 2관 Booth No 71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식사 제공



- 1교구
최용준 안수집사·이윤경 권사 가정
(최용준 안수집사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 하기
2. 앞열 혹은 2중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70인전도대 5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5.1	도르가, 루디아, 뵤뵤
5.5	어린이날	어린이날	5.8	마리아
5.12	자원자	바울, 엘리야	5.15	석가탄신일
5.19	자원자	모세	5.22	리브가, 에스더(오후 2시-3시)
5.26	자원자	이사	5.29	권사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5월6일	월	대상 7-8	민14	시50	사3,4	히11
5월7일	화	대상 9-11	민15	시51	사5	히12
5월8일	수	대상 12-14	민16	시52-54	사6	히13
5월9일	목	대상 15-17	민17,18	시55	사7	약1
5월10일	금	대상 18-22	민19	시56,57	사8,9:1-7	약2
5월11일	토	대상 23-25	민20	시58,59	사9:8-10:4	약3
5월12일	주일	대상 26-29	민21	시60,61	사10:5-34	약4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2. 서울교회에 제4대 담임목사 청빙 과정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향존직 선거를 통해 신실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3. 성경의 가치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눈물과 탄식이 있는 곳마다 십자가의 구원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 전도사
박미라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는 박지연
- ◇ 협동목사
양정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